

전시리뷰

《두 전시 이야기: “Silk Roads” & “A Silk Road Oasis-Life in Ancient Dunhuang”》

Silk Roads:

2024年 9月 26日 ~ 2025年 2月 23日

The British Museum

Great Russell Street London WC1B 3DG

A Silk Road Oasis-Life in Ancient Dunhuang:

2024年 9月 27日 ~ 2025年 2月 23日

The British Library

96 Euston Road London NW1 2DB

차윤정*

지난 2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East Anglia) 세인스버리 연구소(Sainsbury Institute)의 초청을 받아 런던을 방문, 두 개의 실크로드 전시를 관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작년 일본에서의 실크로드 전시에 이어 유럽의 전시까지 보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일본 전시는 중국 내 27개 박물관의 유물들을 3개의 주제에 따라 구성한 정적인 느낌의 전시였다면, 영국박물관의 전시는 자체 소장품과 29개 국내 및 국제 기관의 유물들로 유라시아(북아프리카 포함) 지역의 다종다양한 문화를 시각·청각·후각적 보조자료들까지 동원하여 구현해낸 드라마틱한 느낌의 전시였다(Fig. 1). 영국도서관의 전시도 규모는 작았지만 영국박물관과 흐름을 같이하는 매우 입체적인 성격의 전시였다(Fig. 2).

* 불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Fig. 1. 《Silk Roads》 전시회장, 영국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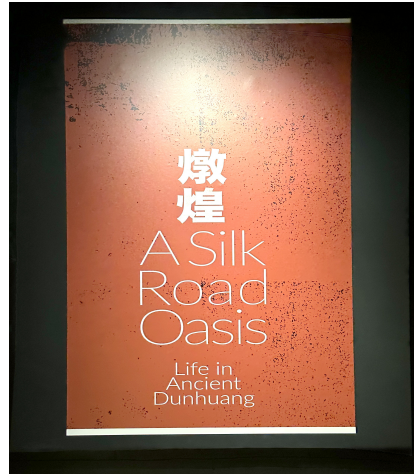


Fig. 2. 《A Silk Road Oasis-Life in Ancient Dunhuang》 전시회장, 영국도서관

세인스버리 연구소 사이먼 케이너(Simon Kaner) 박사의 주선으로 일반 개관 시간보다 앞서 관람할 수 있었던 영국박물관의 《Silk Roads》 전시장은 ‘실크로드의 느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짙짙한 방울을 울리며 사막을 걷는 낙타 발자국 소리, 모래바람 소리, 바자(bazaar)의 흥정하는 소리, 구슬픈 노래 소리, 파도 소리 … 그리고 이국 향료의 냄새가 은은히 떠도는 것 같은 공간에, 고속도로 이정표처럼 천장 높이 걸린 도시의 이름들, 장안, 돈황, 호탄, 사막르칸드, 부하라,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콘스탄티노플, 로마 …, 마치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행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

전시는 ‘헬고 붓다’로 불리는 작은 동계 불상으로 시작되었다. 제작지로 추정되는 파키스탄 스와트 계곡에서 5000킬로미터나 떨어진 스웨덴 헬고(Helgö) 섬에서 발견된 이 불상(500~600년경)으로 인해 실크로드의 범위는 극적으로 확장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아일랜드에 이르는 광대한 공간을 실크로드의 범위로 포괄한 이 전시의 기획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유물이었다.

전시는 지리적 범위에 따른 6개 섹션과 각각의 소주제에 따른 5개 섹션이 교차하며 구성되었다.²

첫 번째는 “Three capitals in East Asia”로, 백만탑다라니, 정창원 유리기, 감은사지 사리기,

계림로 보검, 당삼채와 금속기 등, 한·중·일 동아시아 세 나라에서의 불교의 전파와 확산, 문물의 교류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Seafarers in the Indian Ocean” 주제로 인도네시아 벨리통(Belitung) 섬 해저에서 인양한 유물 등 바닷길에서 발견된 난파선 유물들도 전시되어, 당나라를 오갔던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에 의한 바닷길 교역의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Southeast Asia to the Tarim Basin”, 즉 동남아시아, 동인도 비하르 지방, 티베트 고원과 그 북쪽의 타림 분지에 이르는 지역을 다루었다. 자바, 수마트라, 말레이 반도에 걸쳐 대제국을 이루었던 스리비자야(Srivijaya) 왕조와 인도 팔라 왕조의 불상, 티베트의 금속기, 오렐 스타인(Aurel Stein)의 타림 분지 수집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2미터 크기의 양주(涼州) 서상(瑞像) 수불화(繡佛畫)는 스타인 컬렉션의 질과 양을 실감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시품이었다. 또 “Sogdians from Centel Asia” 주제로 아프리카시압(Afrasiab) 앰배서더 홀(Ambassador Hall) 벽화 등 소그디아 유물이 대규모로 전시되어 옛 사마르칸드의 영화를 재현하고 있었다.

세 번째, “Central Asia and the steppe” 섹션에서는 몽골리아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스텝지대의 생활과 종교에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었다. 카자흐스탄 추이(Chüy) 계곡에서 발견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유물들은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공존했던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스텝지대까지 진출했던 바이킹의 흔적을 “Vikings on the austrvegr”에서 다루었다. 헬고룻다는 바이킹 시대 이전에 이미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바이킹들은 동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연결되는 강 루트를 이용했는데, 이 루트를 고대 노르드어로 ‘아우스트르베그르(austrvegr)’ 또는 ‘캐스테른 웨이(castern way)’라고 하며, 흑해와 비잔티움으로 이어지는 드네프르(Dnieper) 강, 카스피해와 그 너머로 이어지는 볼가(Volga) 강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 루트를 이용하여 8000킬로미터를 동진(東進)하다가 호라즘(Khwarazm,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망한 바이킹도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Central Asia to Arabia”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와 7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 제국들의 활약상을 다루었다. 170센티미터가 넘는 부하라 바라흐샤(Varakhsha) 궁전 레드

2 이 구성은 전시 도록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시장에는 섹션별 분리 없이 높이 걸린 도시 이름 아래에 해당 유물들을 전시하고, 그사이사이에 특정 주제에 의한 전시를 배치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하의 섹션 명은 전시 도록의 챕터 제목을 따른 것이다.

홀(Red Hall)의 벽화(730년경)는 이슬람화되기 시작한 소그디아나 지역의 마지막 대규모 벽화로, 이후 이 지역의 건물들은 아프리카 출토 스투코 패널(800~1000년경)과 같이 전형적인 이슬람의 식물도형 문양 등으로 장식되었다. 아프리카 홍해 연안에서 1~8세기경 번영한 기독교 왕국 악숨(Aksum)의 문물도 “Aksumites and their port city, Adulis”를 주제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악숨 왕들의 비잔틴 스타일 금화, 아둘리스 교회 유적 출토 십자가 문양 건축부재편 등 접하기 힘든 흥미로운 유물이 많았다.

다섯 번째 “Mediterranean connections”에서는 동서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했던 두 제국, 비잔틴과 이집트 파티마 왕조의 문물을 전시하였다. 북아프리카와 인도의 상아를 사용한 초기 기독교 조각, 6세기경부터 양잠업이 시작되었던 비잔티움 산 실크 직물(600~900년), 이집트 푸스타트(Fustat) 출토 구자라트 산 면직물(950~1000년), 중세 지중해-실크로드 교류와 관련된 역사 자료의 보고인 카이로 벤 에즈라 시나고그(Ben Ezra Synagogue) 게니자(geniza,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에 딸린 저장고) 출토 문서류(지중해-실크로드 역사 자료의 보고) 등 중세의 동서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울러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한 무슬림들에 의한 알 안달루스(al-Andalus)의 독특한 혼합 문화의 산물을—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북아프리카, 서고트, 로마, 비잔틴 등을 포괄—“Peoples in al-Andalus”에서 보여주었다.

마지막은 “Northwest Europe”으로, 서유럽에서 영국, 아일랜드에 이르는 지역을 실크로드로 편입하여 구성된 섹션이다. 기존의 실크로드에 관한 논의에서 북서 유럽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와 비잔틴 제국으로 연결되었으며, 론강, 라인강, 다뉴브강은 수운(水運)을 통해, 발트해와 북해는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해상 교통로를 통해 연결되었다. 영국의 경우 5세기 초 로마의 지배가 끝난 후 고립 상태에 빠졌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고고학적 성과들은 지중해 세계는 물론 홍해, 남아시아와의 교역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유명한 서튼 후(Sutton Hoo) 배 무덤(ship burial)의 부장품은 그 대표적인 예로, 치유의 목적으로 부장된 시리아산 역청 덩어리, 비잔틴 스타일의 사슬 갑옷, 흑해 지역에서 유래한 석류석 칠보 세공 장식 등 광범위한 지역과의 접촉에서 비롯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발굴에 관한 영화 “The Dig”를 떠올리며 석류석 세공 금제 유물들을 보다가 첫 번째 섹션의 계림로 보검이 떠올랐다. 실크로드 동서의 끝, 경주와 서튼 후에서 발견된 비슷하게 세공된 아름다운 부장품 … 뭔가 ‘수미쌍관(首尾雙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실크로드 대장정을 서튼 후 유물을 보며 마쳤다.

영국도서관의 《A Silk Road Oasis-Life in Ancient Dunhuang》전은 동부 실크로드 지역

출토 문서들을 디지털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보존하기 위한 글로벌 협업인 ‘국제 돈황 프로그램(International Dunhuang Programme, IDP)’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다.

전시품 대부분은 막고굴 장경동 출토 스타인 컬렉션으로, 50점 이상의 필사본, 인쇄본, 그림 등이 돈황의 다양한 문화, 종교 및 생활을 생생하게 재현하였다. 전시는 등장인물들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도시의 문화와 예술은 서기관, 인쇄공, 예술가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고, 외교 및 상업 교류의 복잡다단한 네트워크는 상인, 외교관, 점쟁이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종교적 순례의 성소로서 돈황의 유산은 승려와 재가 불교도를 통해 설명되었다. 이들 옛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은 매우 입체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는데, 예를 들어 “머릿맡은 소그디아인 부인이 남편에게 쓴 편지”는 소그디아어 낭독 음원을 들으며 현대어로 번역된 편지 내용을 읽는 과정에서 어찌나 생생하게 와닿던지… ‘나와 딸을 친정이 있는 사마르칸드에서 돈황으로 이사시켜 놓고 당신은 3년간이나 소식이 없군요. 우리는 중국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사하라는) 당신의 말을 들었던 나에게 신들이 분노했음이 틀림없어요.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개·돼지의 아내가 되고 싶을 지경입니다!’ 한탄하며 하소연하다가 끝내는 분노하고야 마는 가엾은 소그디아 여인의 목소리가 아득한 공간을 훌쩍 넘어 나의 귀와 마음에 와닿았다.

전시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유명한 금강경(868년, 간행 연대가 있는 最古의 인쇄본)을 비롯하여 필사자 본인의 피로 쓴 금강경 사본(최초 공개), 돈황 별자리 그림(현존 最古), 티베트어로 기록된 티베트 연대기(현존 最古), 막고굴 천장 천불도를 그릴 때 이용한 종이 원판, 십일면관음보살도(최초 공개) 등 흥미로운 전시물로 가득한 알찬 전시였다.

이 전시의 한자 제목이 ‘敦煌’이 아니라 ‘燉煌’인 것이 궁금해 전시를 안내한 큐레이터 멜로디 두미(Mélie Doumy, IDP manager) 씨에게 물었더니 조사한 문헌의 80%에 ‘燉煌’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것을 따랐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리고 보니 전시품 중에서도 ‘燉煌’ 표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불화(火) 변이 붙은 돈황,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돈황… 고대 돈황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전해주는 전시 제목으로 매우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